

# 민 속 자 료

## 1. 용미리 진대

### 1) 마을개관

#### ■ 마을의 위치

#### ● 소재지 : 광탄면 용미리

광탄면 용미4리 진지동으로  
옛 국도1호선변이 벽제관에서  
혜음령고개를 넘어 고개 우측  
으로 형성된 농촌마을. 뒷편  
의 산을 구룡골(용의 꼬리부  
분이 아홉 개로 갈라졌다)이라  
부른다.

#### ■ 마을 이름의 유래와 연기

#### (緣起) 설화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 광  
탄면 지역의 호미리 · 구룡리



전부와 분수원 일부를 병합하여 九龍의 ‘龍’ 자와 虎尾의 ‘尾’ 자를 붙인 이름이다.  
용미4리의 자연부락명칭은 진따배기(陣地洞)이다.

임진왜란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진을 쳤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명  
나라 병정들이 적장의 목을 베어 진대에 매달아 두기로 하였으며 이여송이 진을  
쳤던 시절에 피난을 갔다오니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서울쪽의 업을 이 마을에  
물어오라고 황새주둥이를 서울로 향하게 놓았다.

용미리 진대의 역사는 400여년으로 추정된다.

#### ■ 마을의 형성시기

#### ■ 마을의 성씨분포 : 파평윤씨가 25가구, 밀양박씨 4가구

#### ■ 마을의 세대수 : 156호 75가구

### 2) 마을신앙

#### ■ 제의 명칭 : 용미리 진대굿

#### ■ 제의 목적

가을굿이므로 추수감사·제액초복·마을 단합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용미리 진대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앞서 있다고 하겠다.

#### ■ 제의 일시

예전엔 택일하여 음력 10월에 산치성과 무속형의 진대굿을 하였으며 초상이 나면 날을 물렸었다. 1962년도부터 음력 10월 3일로 고정하고 고사형식으로 간단하게 지냈더니 마을에 우환이 생겨 1988년 이래 다시 대동굿을 한다.

#### ■ 제당(祭堂)명칭

제당으로는 육산도당·소산도당·진대가 있다. 육산도당(肉堂, 도당서낭)은 마을 왼쪽 산기슭에 있으며 당집 없이 터 주변에 소나무가 10여그루 둘러 있다. 대동굿을 할 때 이들 소나무 중 한 나무에 한지를 접에 묶어 神體로 이름짓는다. 육당은 도당할아버지를 모신 곳으로 제물로 고기를 올린다하여 불인 이름이다.

소산도당(소당서낭)은 육당 옆쪽 산 밑에 있으며 육당과 마찬가지로 神木을 이름지어 도당할머니의 神體로 삼는다. 제물로는 고기를 일체 쓰지 않는다. 마을 입구(진대할아버지)와 뒤쪽(진대할머니)의 교회 앞에 진대가 세워져 있다. 진대는 소나무로 만든다.

4m 높이의 진대 끝에 올린 새 모양을 ‘황새대가리’라 했다.

예전엔 진대를 3년마다 새로 세웠으나 근래엔 썩으면 태워버리고 다시 만들어 세운다.

#### ■ 제당의 형태

진지동의 부락제는 산치성과 무속형이 혼합된 가을굿이며, 진대고사가 있는 점이 특징이다. 솟대를 세우는 목적에는 제액풍농, 行舟形 지세에 세우는 뚫대, 과거 급제기념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하여진다. 용미리 진대는 제액풍농에서도 풍농 쪽에 무게를 둔다고 할 수 있다. 장승 없이 세워진 솟대 단독형이다.

일반적으로 솟대 두 개를 세울 때 새의 입을 한 마리는 마을 밖을 향하게 하고 다른 한 마리는 마을 안을 향하게 하는데 비해서 용미리 진대는 황새주둥이가 모두 마을의 바깥쪽을 향했다.

#### ■ 제비·제물

교인이나 타향 사람들은 제외하고 집집마다 쌀 1되씩 걷는데 70가구 정도가 내고 있다. 제물로는 통돼지 1마리, 소금으로 간만 맞춘 시루떡(팥떡 2시루·백설기 1시루)과 절편, 과일류(사과·배·밤·대추), 쇠고기적, 북어, 메와 막걸리를 준비한다.

#### ■ 제차

구월 그믐께 마을 임원들이 모여 진대고사의 규모와 추렴 액수 등에 관한 협의

를 한다. 이전엔 부정 없는 사람 중에서 생기복덕을 보아, 제물 준비할 당주 한 사람을 선정하였는데 십년 전부터는 당주집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이장이 구입해 온 제물을 동네부인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준비한다.

대동굿을 할 때는 낮 12시쯤 진대에 고사를 올리고 북어를 한지로 뮤어 진대에 매단 다음 당산으로 향한다. 소당에서 부정을 친 후 육당에서 12거리(부정청배·부정거리·불사맞이·장군거리·별상거리·신장거리·별상대감·대감놀이·조상거리·성주거리·창부거리·뒷전) 굿을 한다. 보통 저녁 6시쯤이면 굿이 끝난다. 여자들도 부정이 없으면 당에 올라갈 수 있다. 대동굿을 생략할 적엔 오후 5시쯤 진대할아버지 고사를 시작한다. 고사축원은 동네만신이 해오고 있다.

육당굿이 끝나면 마을회관으로 내려와 음복하고 결산한다. 만신들에 대한 수고비는 미리 계약하지 않고 당일 목돈을 정한다.

## 2. 문지리 선돌(立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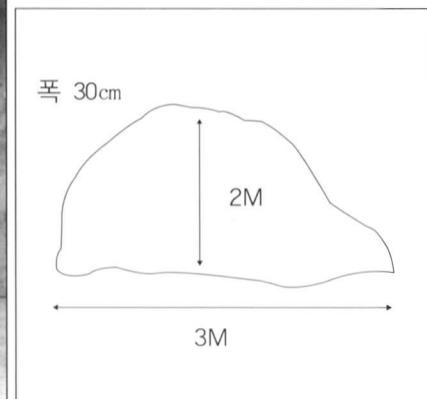
### ● 소재지 : 탄현면 문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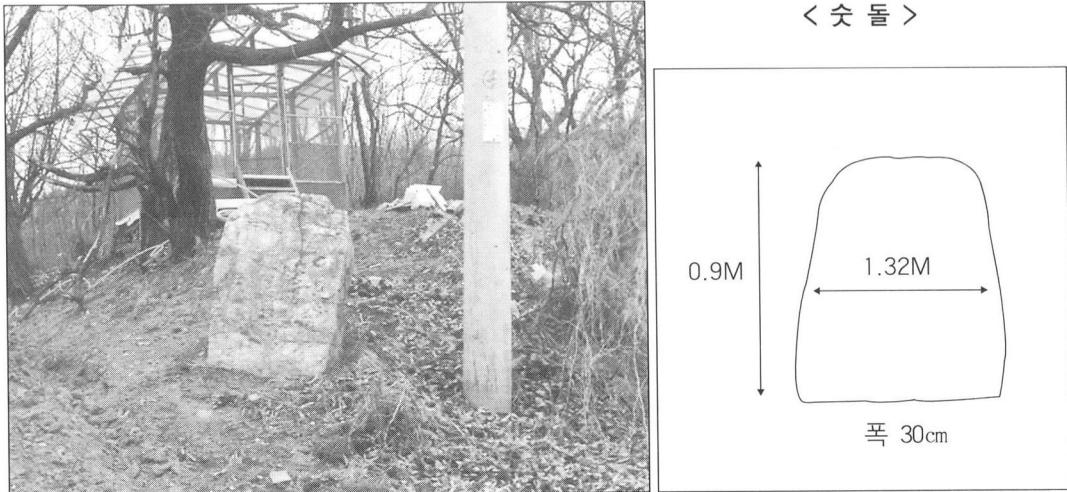
탄현면 문지리 마을 입구에 세워진 선돌은 선사시대 유적으로 부족간의 경계, 마을의 안녕, 풍농을 기리는 의미로 세워졌으며 마을의 재앙이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호신의 역할로 종교적인 사상에 의해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문지리 선돌은 2개가 농경지를 사이에 두고 약 200m 떨어져 마주 보이는 곳에 세워져 있고 동편의 선돌은 반월형 모양에 높이가 약 2m의 화강암석으로 되어 있으며 서편의 선돌은 장방형의 약 1m 높이의 차돌로서 동편의 선돌을 암돌, 서편의



< 암 돌 >





것을 숫돌이라 칭한다.

문지리 마을에서는 1년에 한번 선돌 앞에서 제를 지낸다고 하며 선돌을 건드리면 재앙이 온다고 믿고 있다.

현재 파주에 전해지고 있는 민속신앙의 대상물인 선돌(立石)은 이곳이 유일하며 파주 민간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3. 문산 도당굿과 호영산 호대감 놀이

#### 문산 도당굿

##### 1) 전승지

● 소재지 : 문산읍 당동리

문산읍 당동리 하동(下洞)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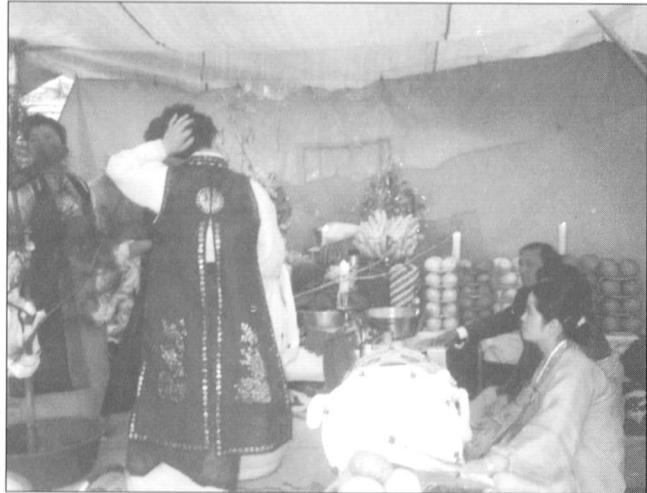
##### 2) 유래 및 해설

###### ■ 유래

일반적으로 도당굿은 주로 경기도 지방에서 행해지는 마을굿을 일컫는다. 파주시내에도 현재까지 행해지고 있지만, 특히 문산 도당굿은 역사가 깊고 규모 면에서 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마을굿과 달리 호영산 호대감놀이라는 굿놀이가 수반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놀이는 과거에 호환(虎患)을 입은 마을에서 행하는 절차로 파주시 일대 다른 지역의 도당굿에서도 나타난 바 있으나 현재는 거의 사라지고 문산포만이 보존 전승되고 있다.

문산 도당굿이 그 규모가 크고 성대했던 것은 지리적 배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파주군사(坡州郡史)(1984, 파주군)에 의하면, 임진강을 끼고 있는 문산포는 수운(水運)의 중심지로 주운(舟運)이 발달하여 인근 황해도, 고랑포, 연천 등지에서 오는 조기 배와 지방 산물의 집산지였으므로 이곳은 늘 황포돛대가 끊일 사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곳에 집결된 물산은 대시장을 형성하였고 상권의 형성을 가져왔다.



이러한 주변적 환경에서 문산 도당굿은 마을 주민들은 물론 각종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이로써 마을의 평안과 함께 풍농, 풍어, 시장의 번영 등을 기원하게 되었고, 자연 그 규모는 성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굿판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구름떼 같이 모여들어 발 들여놓을 틈이 없었고, 한편에서는 난장이 서고, 풍물놀이, 광대놀음, 씨름, 그네, 활쏘기 등의 놀이판이 벌어져 축제의 흥취를 돋우었다 한다. 행사는 5~7일간 계속되었으며 이때 모이는 상인이나 구경꾼들은 인근의 김포, 강화, 개풍, 장단, 개성 등지에서 모여들어 문산포 일대는 대성시를 이루었다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굿 또는 난장굿이라고도 불리는 별신굿이 시장의 경기부홍책의 한몫을 담당해왔듯이 문산 도당굿도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문산 도당굿은 6·25 이후 남북 분단과 내륙 교통의 발달 등으로 인한 포구의 쇠퇴와 함께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그 규모가 자연 축소되고 난장과 각종 놀이도 사라지고 현재는 당굿만이 지속되고 있다.

문산 도당굿은 무속에 대한 탄압이 심하던 일제 강점기에도 계속되었으며, 한때 1953~1976년 사이의 18년 동안 중단된 적이 있었으나 동네에 여러가지 변고가 생겨 1977년경 복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산 도당굿과 문산 도당(원당, 본향)이 언제 생겼는지 그 역사는 확실하지 않고 그 유래와 관련된 설화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 (1) 설화 ... ①

옛날에(임진왜란 때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병자호란 때라고도 함) 한 장군이 문

산 포구에서 전장에 출전을 했다. 출전하면서 부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쟁에서 이겨 살아돌아오면 배에 흰 기를 꽂고 돌아올 것이고, 죽어서 돌아오면 배에 빨간 기가 꽂혀 있을 것이오.”하고는 흰 기를 꽂고 출전하였다.

장군이 떠난 뒤 부인은 산(현재 당이 있는 부근으로 옛날에 그 밑은 절벽이었고 거기까지 물이 들어왔다고 함)에서 매일 정한수를 떠놓고 장군이 승전해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였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장군 부인이 기도를 하다 앞을 바라보니 포구 저쪽에서 배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장군의 배임을 알아차린 부인은 얼른 뱃기부터 쳐다봤다. 그것은 빨간색이었다. 부인은 낙망하여 “아, 장군께서 돌아가셨구나”하고는 곧바로 절벽 아래 강물에 몸을 던졌다.

장군이 도착하여 부인이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타고온 배의 기를 쳐다보니 기가 빨겋게 물들어 있었다. 전장에서 격렬하게 싸우다보니 피가튀어 기가 빨갛게 물이 든 것을 모른 채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다. 장군은 “아차 이거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하고 자책했으나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장군의 부인이 죽은 뒤 문산포에는 고기잡이배가 파선되고, 물에 사람이 빠져죽고, 동네에 여러가지 사고가 나는 등 풍파가 잦았다. 동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장군 부인의 원혼(冤魂) 때문이라 여기고 그 혼백(魂魄)을 달래기 위한 굿을 벌였다. 그런 뒤 배가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니고 문산사람들이 편안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산에서는 3년마다 한번씩 도당굿을 크게 벌여오고 있다고 한다.

## (2) 설화 … ②

어느해 큰 홍수가 져서 짐더미 같은 게 포구에 떠들어왔다. 건져보니 그 속에는 신상(神像)과 같은 유물(遺物)들이 들어 있었다. 주민들은 이를 신성한 물건이라 여겨 당집안에 모시고(또는 당을 지어 안에 모시고) 받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곳의 도당은 떠들어온 당 혹은 ‘물당’이라고도 부른다.

뱃사람들이 고기잡이 나갈 때 이 곳에 배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치성을 드리고 나가면 고기가 많이 잡히고 사고가 없었다고 한다.

### ■ 해설

위의 설화① 설화②의 내용은 문산 도당굿과 도당의 유래를 각각 보여 주고 있다.

설화①은 장군 부인이 죽은 뒤 마을에 우환이 찾아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해 굿을 시작했다는 내용에서 이때부터 문산 도당굿이 비롯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그 시기는 막연히 ‘옛날에’라고 하는가 하면 ‘임진왜란(1592~1598) 때’ 혹은 ‘병자호란(1636~1637) 때’라고도 하는 것으로 보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대전란이 있었던 16~17세기에 문산 도당굿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도당의 유래에 있어서도 장군 부인이 치성을 드리던 곳이 원래 당이 있던 자리인지 아니면 장군 부인이 그곳에서 죽은 뒤 도당굿을 벌이면서 당이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설화 ②에서는 당의 형성 과정이 보다 구체성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의 형성 유래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하나가 홍수에(또는 물에) ‘떠들어온 당’의 유형이다. 예컨대, 강릉 남문동 ‘짐대백이 서낭’(현지에서는 진또배기 서낭이라 함)도 설화 ②와 유사한 내용이을 지니고 있다. 곧 대관령(일설에는 함경도 해안)에서 떠내려온 짐대가 강문 해안에 닿아 마을 사람들이 이를 건져 세우고 제사를 올렸더니 동네가 번성하여 계속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 보면 설화②는 설화①보다 선행적인 당의 형성 과정을 보인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단정지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재앙을 가져다주는 여자의원혼을 달래기 위해 그 혼령을 동신(洞神)으로 모셔 마을굿 제사를 지내줌으로써 동제 또는 마을굿이 비롯되는 일은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해안 지방과 같은 해안지방에서 그러하다. 이 경우는 대개 동제(또는 마을굿)의 발생과 당의 형성과정이 동시적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화①은 문산 도당굿과 도당의 동시적 발생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달리 문산 도당굿이 생기기 전에 이미 당(산신당)이 존재한 것으로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설화 1에서 장군 부인이 치성을 드리던 원래부터 있던 당으로 신목(神木), 곧 당나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가장 원초적이고 일반적인 당의 형태는 자연 그대로의 나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당이 있는 주변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오래된 참나무 신목이 있었고(삼년 전 쯤에 죽어 없어졌다), 매년 가을에 산치성을 올리는 사실에서도 그러한 가정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유추와 가정을 종합해볼때, 당나무를 신체(神體)로 자연적인 신당(산신당)의 모습을 유지하다 설화②의 신상을 당집에 모시고 제의가 행해졌으며 설화①의 장군부인의 원혼으로 어로(漁撈)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주민들에게 변고가 생기자 도당굿이 시작되었다는 하나의 공식이 성립될 수 있다. 물론 설화①의 도당굿과 도당이 동시에 생긴뒤에 설화②가 나중에 첨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유래에 직접적인 배경이 되지 않나 추정했을 때이다.

현재 도당은 당집으로 되어 있으며 안에 옛날에 있었던 신상은 없어지고 근래에 새로만든 임경업장군, 관우장군, 걸립, 백마장군, 글문도사, 산신, 창부, 삼복제석, 칠성, 최일장군, 별상, 오방신장, 불사할머니, 옥황상제, 선녀부인, 중국장군, 대신할머니 등 17개의무신도(武神圖)가 모셔져 있다. 그리고 당 옆 한쪽 구석에는 짚주저리 형태로 된 살룡대감을 모셔 놓았다.

### 3) 구성 및 출거리

문산 도당의 제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해마다 지내는 산제(山祭 : 산치성)이고 다른 하나는 3년에 한 번씩 벌이는 도당굿이다. 산제는 음력 10월에 택일하여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 제관을 선정하며 유가식(儒家式)으로 지낸다.(근래에는 도당 부근에 있는 절에서 지낸다.) 도당굿은 음력 3월에 날을 받아 벌이는데 3일간 한다.

제의 비용은 각 집마다 추렴하여 충당하며 일부는 외부의 찬조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매번 어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돼지 한 마리를 낸다. 제수(祭需)는 다른 제의와 비슷하며 희생(犧牲)으로 통돼지 한 마리를 쓰는데 호영산 호대감놀이에는 개를 희생으로 쓰는 점이 특이하다.

문산 도당굿의 절차는 중부지방 마을굿과 대동소이하다. 맨먼저 당맞이부터 시작되는데 이 절차는 다른 곳에 비해 그 규모가 커서 지금도 하루가 걸린다.

남녀 서낭을 상징하는 참나무와 소나무를 각각 든 대접이 2명을 선두로 그 뒤에 대동기, 농상기, 오방기, 풍물꾼(농악대), 무당, 악사, 구경꾼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행진하여 문산 일대 7군데에서 당신(堂神)을 모셔온다. 옛날에는 이때 말을 타고 갔는데 실제로 그 광경이 장관이었다고 한다. 당맞이를 해오는 곳은 문산읍 사목리(반구정 부근), 정박골, 강다리, 하동 사거리, 상동, 상동 사거리, 창동 사거리 등 7 군데이다.

당맞이가 끝나면 이어서 부정거리, 대감거리, 제석(칠성)거리, 장군거리(산거리), 별상거리, 신장거리, 호구거리, 성주거리, 창부거리, 서낭거리, 덧대감거리, 걸립거리, 지신거리, 맹인거리, 군웅거리, 뒷점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보통 16거리가 행해진다.

호영산 호대감놀이는 군웅거리 끝에 행해진다.

## 호영산 호대감놀이

### 1) 유래

#### ■ 놀이의 배경과 목적

문산(汶山)은 지명에서 나타나듯이 강과 산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옛날에 이 곳은 산이 깊고 강이 인접해 있어 산짐승들이 많았으며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일이 많았다.(지그은 강에 제방을 쌓고 산기슭까지 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옛날에는 현재 도당이 있는 부근에 집이 하나도 없었고 산 밑까지 물이 들어왔다고

한다.) 특히 호랑이가 많아 사람을 해치고 가축을 물어가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호영산 호대감놀이를 하게 되었다 한다.

이 놀이에서 ‘호영산’이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이 넉을 말한다. 이 혼령은 원한귀이므로 여기 저기 아무데나 집적거려 탈을 일으킨다. ‘호대감’은 호랑이를 다스리는 신령으로, 호환(虎患)에 간 사람들의 넉을 달래어 탈을 막고, 호대감에게 희생(犧牲)을 바쳐 즐겁게 놀려서 동네가 편안하고 호환을 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마을에서나 다 이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호랑이의 피해를 입은 마을에서만 한다.

#### ■ 희생 설화

호영산 호대감놀이의 희생으로는 개 한 마리를 사용한다.(현재는 개 머리만 쓴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기 때문에 사람 대신 개를 잡아서 호대감에게 치성을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개는 인육(人肉)을 상징한다. 여기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도당굿 날을 받아 놓고 굿 준비를 하면 3일 앞두고 저절로 동네 개 한 마리가 들어온다. 산에 올라와서는 빙빙 돌아다니며 근방에 버리는 음식을 쫓아먹고 가지를 않는다. 못 들어오게 때려 쫓아버려도 도로 들어와서 나무밑에 턱 자빠져 있거나 한다. 그러면 개를 나무에 목을 매어 잡아서 산 어딘가에 몰래 파묻어 버린다. 그런 다음 호영산 호대감놀이때 호대감으로 하여금 이 개를 찾게 한다.

지금은 산을 파고 집이 들어서고 해서 산의 명기(明氣)가 없어져 개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를 사서 쓰는데 고기를 먹고 머리만 파묻는다.

#### 2) 구성 및 줄거리

호영산 호대감놀이는 군웅거리 끝에 군웅 배웅하면서 하는 절차로 본향산(도당이 있는 산) 위에서 행해진다.

진행 과정은 당에서 군웅할아버지가 소첩을 데리고 춤을 추고 선막등이와 후막등이가 익살을 부린 뒤 산 위로 대호사냥을 나간다. 이때 풍악이 울리면서 군웅할아버지, 소첩, 대동기(농상기), 오방기, 풍물패, 무당, 악사 등의 행렬이 당 뒤로 해서 곧바로 산 위로 올라간다(옛날에는 당에서 밑으로 내려와 마을을 빙돌아서 하동 뒷산으로 해서 올라갔다 한다). 산 위에서는 대호사냥, 도액(度厄), 군웅 공수, 호영산 호대감놀이의 순서로 굿놀이가 진행된다. 본과장인 호영산 호대감놀이는 대사(臺詞)가 없이 행위로만 하는 무언극(無言劇)으로 연희된다.

호영산 호대감놀이의 등장 인물과 대본은 1992년 4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문

산읍 문산2리 하동에서 있었던 문산 도당굿의 굿놀이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현재 사용되지 않은 탈과 당시 연희 때 누락된 부분(연희자들이 미숙하여 제대로 손이 안맞아 빠진 부분이 있었음)은 전순녀 만신(여, 71세, 군웅할아버지역 담당)의 도움을 받아 보충하였다.

#### ■ 등장인물

호영산 호대감놀이에 등장하는 인물은 군웅할아버지, 소첩, 호대감, 선막등이, 후막등이 등이다. 옛날에는 호랑이와 어릿광대 한 두명이 더 있었다고 한다. 탈은 나무 혹은 바가지로 만들었다고 한다. 과거에 이 놀이에서 사용된 탈과 복색은 다음과 같다.(이 자료는 전순녀 만신인 6·25전에 본 것을 토대로 하였다.)

#### 군웅할아버지

탈 : 눈은장군 눈처럼 길죽하게 위로 치켜져 있으며 흰 수염이 길게 늘어진 점 많은 모습이다.

복색 : 군웅거리에서 입던 홍철력에 빗갓(홍갓)을 쓰고 입에는 담뱃대를 물며 왼쪽 어깨에 활을 메고 왼손에 화살을 듦다.

#### 소첩

탈 : 탈을 쓰지 않는다.

복색 : 각시옷(평복)에 창옷(빨강치마)를 뒤집어쓴다.

#### 선막등이

탈 : 남자 형상의 탈로 익살스러운 모습이다.

복색 : 평복차림이다(청폐자 혹은 대감옷이라고도 함.)

#### 후막등이

탈 : 남다 형상의 탈로 익살스러운 모습이다.

복색 : 평복차림이다.(빨강치마 또는 대감옷이라고도 함.)

#### 호대감

탈 : 탈 대신 베형짚으로 눈 있는데를 가려 아래만 보이게끔 해서 쓰고 그 위에 지푸라기(또는 원새끼)로 칭칭 감아 묶는다.

복색 : 평복차림(만신옷)

#### 호랑이

탈 : 이빨은 무는 듯한 무서운 형상이다.

복색 : 호랑이처럼 얼룩덜룩한 점박이 옷(현재 없음)

#### 어릿광대(1)

탈 : 보통 남자탈을 썼음

복색 : 평복차림

## 어릿광대(2)

탈 : 연지곤지 찍은 각시탈

복색 : 각시 옷차림

### ■ 대본(臺本 : 줄거리)

- 제1과장 군웅할아버지 · 소첩 과장

군웅 배웅하러 산에 올라가기 전에 당에서 하는 놀이이다. 풍악이 울리면 군웅 할아버지가 소첩을 옆구리에 끼고 풍악에 맞춰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발을 맞춰 춤을 춘다.(안고 추고 지고 추기도 한다). 한동안 춤을 추다가 군웅할아버지가 막둥이들을 부른다.

군웅할아버지 : 선막동아, 후막동아~!(큰소리로 길게 부른다.)

선막동이 · 후막동이 : (달려오면서)네~에~(길게 뽑으며 끝을 올려 대답한다.)

군웅할아버지 : 이제는 오냐 당 마치고 군웅을 모시고 놀러간다.

(소첩을 옆에 끼다)

선막동이 · 후막동이 : 네~에~

군웅할아버지 : 산막동아, 후막동아~!

선막동이 · 후막동이 : 네~에~

군웅할아버지 : 여기 말 없느냐? 거, 말좀 이리 갖다 놔라.

선막동이 · 후막동이 : 네~에~(쌀 한말 든 나무 말을 갖다 놓는다)

선막동이 : (군웅할아버지를 말 위에 앉히며)군웅할아버지, 여기 앉으셔서 담배나 한대 피십시오.

군웅할아버지 : 오냐~(나무말을 타고 앉으며 소첩을 옆에 앉힌다.)

후막동이 : (장북을 갖다 군웅할아버지에게 주고는 불을 붙여준다.)

군웅할아버지 : (담배를 빽빽 피워댄다.)

(이때 막둥이들이 와서 군웅할아버지를 가운데 놓고 뻥뻥 들면서 번갈아 장난을 친다.)

선막동이 · 후막동이 : 군웅할아버지, 군웅할아버지~!

군웅할아버지 : 왜 그러느냐~(천천히 위엄있는 어조로)

선막동이 : 군웅할아버지 소첩 내가 데리고 살랍니다.(소첩의 손목을 잡으려 한다.)

군웅할아버지 : 안된다. 이놈. 내 마누라다.(막둥이들에게 호통을 쳐 쫓아버린다.)

후막동이 : (쫓겨갔다가 다시 와서)군웅할아버지는 마나님이 있으니 그 첨을 날 주세요.(다시 소첩의 손목을 잡아 당긴다.)

군웅할아버지 : (못 빼앗아가게 막으며)에, 이놈. 고얀놈들 같으니라고. 내 마누라를 왜 뺏어가느냐, 버르장머리 없게스리.(엄한 소리로 막둥이들을 나무라며 쫓아버린다.)

선막둥이 : (쫓겨갔다가 다시 와서) 군웅할아버지 소첩 못 데려가게 하면 할아버지 똥구녕에 불놓는다.(태장을 군웅할아버지 엉덩이에 대고 방울로 맵다 닦는다.)

후막둥이 : 군웅할아버지 똥구녕에 불났네, 불났네.(빵빵 들면서 어르고 놀린다.)

선막둥이 : (계속 태장을 막 닦아친다.)

군웅할아버지 : (화가나서) 옛기놈들, 에이 이놈들, 군웅할아버지 뒤에 불놓으면 이놈, 내가 타서 죽으라고 불놓나? 에이 고얀놈들 같으니라구(호령을 낸다 하면 막둥이들이 쫓겨간다.)

후막둥이 : (다시와서 태장을 군웅할아버지 옆구리에 대고 방울로 문지르면서) 군웅할아버지 밥해드릴려고 우리가 술 가십니다.

군웅할아버지 : 떼이놈들, 이놈들(막둥이를 쫓아버린다.)

선막둥이 : (다시와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기(손으로 한 곳을 가리키며) 아주 큰 대호가 있는 것 같으니 대호사냥을 가십시오.

군웅할아버지 : 오냐, 대호사냥을 가시자(소첩을 데리고 일어서 나간다.)

선막둥이 · 후막둥이 : (냅다 쫓아나가면서)

선막둥이 : 군웅할아버지, 군웅할아버지! 내가 먼저 대호를 잡겠습니다.

후막둥이 : 아녜요, 내가 먼저 잡을 겁니다.

군웅할아버지 : 에이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이 암만 재주가 좋아도 이놈아, 군웅할아버지가 대호 잡지 너희들이 무슨 대호 잡느냐? (호령조로)

풍악이 울리면서 일행은 산 위로 행렬을 지어 올라간다. 맨앞에 군웅할아버지가 기다란 담뱃대를 물고 왼쪽 어깨에 활을 메고 왼손에 화살을 들고 소첩을 데리고 춤추며 가고, 그 뒤에 대동기 · 오방기가 가고, 이어서 풍물패, 무당, 악사, 구경꾼들이 뒤따른다. 옛날에는 행렬이 당 밑으로 내려와 마을을 한바퀴 돌아서 하동 뒷산으로 해서 산 위로 올라갔으나 지금은 당에서 곧장 올라간다.

#### • 제2과장 대호사냥

산 위는 널찍하니 경사가 완만하다.

행렬이 모두 올라온 뒤 선막둥이와 후막둥이가 부엉이(닭)를 이리저리 놀린다.

부엉이는 잘 나는 암탉으로 대신하며 발목에 긴 끈(새끼)을 매어 날린다. 부엉이를 날리는 것은 대호의 행방을 찾기 위한 것이다.(풍악은 처음에 느린 장단으로 장구를 쳐주다가 나중에는 제금1 · 피리 등도 함께 연주한다.)

군웅할아버지 : (풍악이 멈추고)

선막둥아, 후막둥아~!

선막둥이 · 후막둥이 : 네~에.

군웅할아버지 : 어느 쪽으로 대호가 있을 듯하나?

선막둥이 : 저기 저쪽 하동 뒷산에(손으로 가리키며) 있을 듯 합니다.

군웅할아버지 : 대호면 부엉이를 잘 날려봐라.

선막둥이 · 후막둥이 : 네~에.(둘이 서로 먼저 부엉이를 날리겠다고 다투다.)

선막둥이 : (부엉이를 잡으며)내가 먼저 잡는다.

후막둥이 : 아니야, 내가 먼저 잡는다.

(서로 겨룸질을 해가지고 후막둥이가 먼저 부엉이를 날린다.)

선막둥이 : (부엉이를 잡아 대호가 있을 만한 쪽으로 멀리 날린다. 부엉이가 날아가는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가 부엉이가 멈추는 것을 보고 군웅할아버지에게 달려간다.)

군웅할아버지, 군웅할아버지!(숨찬 소리로)

군웅할아버지 : 왜 그러느냐~?

선막둥이 : 내가 저기(구체적인 지명)가서 (손으로 가리키며) 부엉이를 날리다 보니 내 부엉이 큰 대호를 하나 맑아놨습니다.

군웅할아버지, 어서 저 대호를 잡으십시오.

군웅할아버지 : 어디다 맑아놨느냐?

선막둥이 : 저기(손으로 가리키며) 뒷산에 있습니다.

군웅할아버지 : 오냐, 일았다. 내가 그럼 대호 하나를 못잡는단 말이냐.(아주 난척하고 쪽 눈을 찌그려 감고 대호가 있는 곳을 향해 활을 당겨 화살을 쏔다. 여러번 쏔다. 화살을 다 쏘면)

동네사람들 : 대호 잡았다, 대호 잡았다.(큰 소리로 고함치며 기뻐 날뛴다.)

군웅할아버지 : 선막둥아, 후막둥아~!

선막둥이 · 후막둥이 : 네~에.

군웅할아버지 : 대호는 다 잡아놨으니, 너희들이 찾아오너라.

선막둥이 · 후막둥이 : 네~에.

옛날에는 동네사람들이 만신이 대호를 찾나 못찾나 보려고 만신들 몰래 통돼지를 대호라 하여 감추어 놓고 찾게 했다 한다. 만신들이 얼마나 영겁한가를 시험한 것이다.

지금은 돼지를 숨겨놓고 찾게 하는 과정은 없다.

## 도액

풍악이 울리면서 군웅할아버지가 복숭아 나뭇가지로 만든 활에 쑥대로 만든 화살을 퀘어 사방팔방으로 화살을 쏘는데 일곱 화살을 쏔다. 활을 지은 뒤 신칼을 삼시사방으로 던져 점을 친다. 화살을 여러 곳에 쏘는 것은 동서 남북 곳곳에 있는 동네 액운을 없애고 재앙을 막기 위한 것이다.

## 공수

풍악이 멈추고, 군웅할아버지가 방울을 흔들면 공수를 준다.

외살릉군웅 내살릉군웅 양위양산에 본향군웅 아니시라

이 도당에 도당군웅 상산은 본향군웅이다.

우리 군웅 마누라 수위에서 에~ 오냐.

살을 어드메로 지으랴.

장구잽이 : 네, 물 아래 다양바다 적두살로 넘기소서.

어 오냐~

우리 군웅마누라 살이

물 아래 대양바다 적두살로 넘길적에

한살에는 쌩내고 두살에는 막아다가

세살에는 의주월가으로 오냐~ 소멸하신다.

문산본향에 하동이냐 중동이냐 오냐가서 어~ 상사동네 오냐

열군웅에 뜬군웅에 후환은 재난군웅~

모두 나쁜 군웅은 오냐가서 물 아래 적두살로 넘기시고

아무쪼록 오냐~

문산포에 본향 안에 백성들아~(주민 : 예~)

구엽구나 반갑구나. 이번에 우리 가서 군웅할아버지 놀으시구.

아무쪼록 오냐~

가중마다 진중마다 밤이면은 불켠 가중 낮이면은 내나는 가중들

물추념에 호추념에 다려가서!

이번에 상산놀이 부군놀이

도당놀이 오냐. 우춘하구 대우하시고,

여러들 자손들 곱게 나게 도와주시구,

우리 모두 오냐 여러분 세대주들이라~

동서남북 사방팔방 넘나들구 댕길지라두

액(악)인은 물려주구 선인은 성불허구 귀인은 다가들게 도와주시구,

원 풀어 도와주고 한 풀어 도와주시나~

어찌 아니 구여우시랴, 어찌 아니 반가우시랴,

이번에 이럴게 모두~

상당에서 오냐 도당놀이 상산놀이 우춘허구 불그더니, 오냐 가서 3일만에~

이제는 군웅배웅 대령허구

어~ 당에 내려와서  
모두 서낭 맞춘 것도  
오냐. 물 아래 대양바다로 나 당기시고  
우리 군웅살도 오냐 대양바다 물 아래 적두 살로 넘겨놓고(주민 : 예)  
자손들 이렇게 시절이 산란하고 해운이 분분한 시절에  
모두 객지에 나가 있는 자손이나 외국에 가 있는 자손이나 타국가 있는 자손이며  
나라에 나가 있는 자손 군사들이냐~.  
이 도당에 오냐 우리 여려들 군사들이냐~  
오냐~  
아무쪼록 이렇게 문산 본향에서 우리 여러 백성들이 물추념 호추념해서  
동네도 편안 허구 요나가서 문산 본향도 편안허구 나라도 편안허구  
국가도 안녕하시자구~  
이 정성을 오냐 국각가 안녕허시구 태평성대해야.  
우리 백성들도 편안허단다~.  
그러니 어찌 아니 구여우시랴~  
이번에 구여움 이만큼 받으시고, 이렇게 오냐 상산에 올라와서  
군웅배웅 대령허구~  
아무쪼록 우리 노인 기주들 노인 오냐가서 한탄(?) 할매 기주들 자손에 걱정없고 노후에  
근심없구 오냐~ 모진 흥역을 다 물리쳐 도와주시걸랑 첫째는 우리 박씨에 오냐 우리가서  
이장이라(이장을 향해서)  
동네전 일을 보시구 방네전 일을 보시구  
(이장 : 네,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상소임 하소임 중소임이냐 이번에 물추념 호추념에(이장 : 네. 네)  
얼마나 가중마다 맹기시느라구 아니꼬운 일 많고 속썩는 일도 많구  
(이장 :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혼자 먹고 부자되고 중소임이 혼자 먹고 부자되고 하소임이 혼자 먹고 부자되느냐.  
여러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서 요냐시주를 맹기구 화주를 맹기구 물추념 호추념 맹  
기는데 진짜 가서 어찌니 말두 많구 탈두 많았구나,(이장 : 네, 네네.)  
그렇건만나서 낭중에라두 너희들 오냐가서 이번에 이런 도당놀이 허면은 다 자손들 편안  
허구 동네가 편안허구 가중이 편안하자구 허는거지 날 누가 위해서 허느냐!  
(호령조로)(이장 : 네, 네네.)잘 먹었네 못 먹었네 하는 소리를 내가 상재를 준다.(호령조  
로)(이장 : 어유, 화내시면 안돼요)  
고양 이녀석들.

(말로) 그러니까서 이거 다 네일이야, 응? 이게 어느 누 사람은 잘되고 어느 새(?) 사람은 망하라구 하나?

다 물추념 호추념일 때 십원을 내도 정성이구 일원을 내도 정성이야.

(이장 : 네, 네네). 응?(호령조로) 그러니까 우리 오냐 박씨 이장, 진짜 애썼어.(말로)

(이장 : 아니 뭐, 저가 이게 주민들이 다 해줘가지구 다 애쓴거 아닙니까?)그렇지만, 그렇지만 응?

그 선도자가 있어야 후도자가 있게 마련이다.(이장 : 네, 네.)

누가 설득을 허는 사람이 있어야지 괜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 도당굿허라구 돈 갖다주는 놈 있나? 가 달라구 그래도 그래. “이우, 맨날 굿을 해도 그렇구 그래”(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로 흉내를 내며)(관중 : 웃음)

이런 일두 많았어 우리 군웅할아버지 속이면 괜히 큰일나, 벌점을 내려.(이장 : 그저 군웅 할아버지만 믿습니다.)

너희들이 오냐가서 잘되구(이장 : 주민들이 다 잘되구, 그러니까 잘 치뤘니 못치뤘니 그런 얘기 없게 좀 해주세요.)

오냐~ 그러면 상벌을 주지. 인제 정성이면, 옛날에 시장 이렇게 백성들이 모두 이게 도당 님 저기, 명기가 없어져서 그렇지.(이장 : 네.) 십원을 내도 정성이면 정성껏 허구, 먹자구 허는게 아니야.

자손들 다 편안허구, 응? 나라에 나간 자손들 편안히 잘 댕겨 오구.

응? 나라에 나간 자손들 편안히 잘 댕겨오구, 응? 차를 끌구 댕기는 자손들도 잘되구 허자고 하는 거지

아, 먹자구 굿해?(크게 나무라는 말로)

(주민 : 몰라서 그렇죠.) (주민: 아이, 그거 뭐 걱정이예요, 왜 그러세요.) (관중들이 웃는다.)

그리고 오냐~

(말로)이 도당은 아직도 좀 날씨가 거칠고 오냐가서 아유, 조신허구는 육을 먹지 말아요, 응?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귀설이 잇고 광풍이 날듯하다. 그러니까 깐 가서~ 아무쪼록 그런 일 없이 도와주시고

이번에 모두 다시

꽃피어 꽃맞이 잎피어 잎맞이 진달래 화전맞이라.

우리 도당놀이 상산놀이 부군놀일 받었으니

설산에 매화본듯 눈진산에 꽃본듯 반갑구 귀여운 정성이구나.

어~ 법가에서 하교가 나렸느냐, 국가에서 천냥이 나렸느냐.

어~하하하하(너털 웃음으로)

상당주 중당주 하당주야,

우리 착한 이장님.

(말로)아따 젊은 사람이 젠장 오냐. 그래도 잘 되려니까 내 다 복 많이 준다.(이장 : 네, 네.)

귀설 없이 해주마(이장 : 네, 네. 복 주시는 것보다 귀설 없게 해주세요.)

이십년 이장 노릇해라.(이장 : 아유, 뭐.)

어~하하 그러면 그러느냐구~

이번에 이렇게 도당에서 상산에서 굽어보시니 반갑구두 귀엽구~

(말로)이번에 이제 한 삼년 있다가 그때두 거창하게 잘 해라. 응?(이장 : 네, 네네.)

오냐, 아무쪼록 우리 가중마다 진중마다 명두 주구 복두 주구 호호마다 진중마다 오냐.

예수두 탄신이구 미신두 예수란다. 예수 믿는 가중두 돈은 안냈어두 그 가중들도 다 편안하게 도와주마.(이장 : 네, 네네.)

(말로)나는 예수무당이냐 아무 소리 마라.(관중들이 웃는다.)

그러니 가서~

이번에 이렇게 모두 상산에서 놀으시구

어~ 귀엽게 받으시구

우리 오냐가서 어~ 호영산 호대감아~

대호는 다 잡아서 갖다놨으니 어서 이젠 호대감을 놀아라.

(공수가 끝나면서 격렬한 무악(樂)이 울린다.)

#### • 제3과장 호영산 호대감놀이

(느린 장단으로 천천히 풍악을 쳐준다.)

이 놀이의 본 과정은 호대감만이 등장하며 대사가 없이 무언극으로 행해진다.

호대감이 산 저편에 엎드려 있다가 미리 숨겨놓은 개대가리를 찾아나선다. 호랑이 시늉을 하며 두손을 흑을 후비고 파 혜집으로 온 산을 헤메고 돌아다닌다. 한참 동안 혜집고 다니다가 드디어 개대가리를 찾으면 그것을 입으로 물고 사라진다. 만일 호대감이 개를 못찾으면 산에 올라온 주민들이 함께 찾아준다고 한다. 개를 못 찾으면 영겁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호대감 노는 사람을 골려주느라고 감쪽같이 묻어놓아 온종일 찾는 수도 있다고 한다.

### 도무

(격렬한 무악이 울리면서)

호대감이 개머리를 찾은뒤 임진강 쪽을 향해서 도무(蹈舞)한다. 그리고나서는 호대감 대령한 날돼지고기(원래는 개 머리)를 물어뜯어 삼시사방으로 버린다.

재앙을 면하게 하는 뜻이 담겨 있다.

이어서 공수를 준다.

## 공수

이 도당에 호영산 호대감 이렇게 잘 놀았으니 아무쪼록 동네가 편안하고 방네가 해주마. 공수가 끝나면 호대감타령을 부른다.

### 호대감타령

장구 장단에 맞춰 대감타령과 같은 곡조로 부른다.(1992년 4월 문산 도당굿에서 는 당사 호대감 역을 맡은 박수가 호대감 노는 데 너무 힘이 들어 타령을 하지 못 했다.)

우리 욕심 많은 호대감  
탐심 많은 호대감  
우리 대감님 거동 봐라.  
거들거리구 놀아보자.  
나쁜 액운을 면했으니  
편안하게 두 도와주마  
우리 대감이 어떤 대감이냐,  
호대감 두 내대감이다.  
살룡대감 두 내대감이다.  
(이하 생략)

호대감타령을 끝으로 호영산 호대감놀이를 모두 마친다.

옛날에는 호대감을 놀 뒤 돼지 대가리와 덕, 나물 한 접시, 술 한 잔을 차려서 바위 위에 올려놓으면 음식이 감쪽같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는 호랑이가 밤에 나타나 물어간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호랑이 발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호영산 호대감 놀이가 끝나면 모두 산에서 당으로 내려와 마당거리를 한 뒤 모든 굿을 끝마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문산 도당굿은 다른 지역의 마을굿과 전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문산 도당이 그 일대에서 가장 큰 원당이므로 당맞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또 호영산 호대감 놀이라는 굿놀이가 행해지고 있는 점에서 그 특색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호영산 호대감 놀이는 아무 도당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옛부터 호환을 당했던 마을에서만 특별히 행하는 제의적(祭儀的) 놀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다. 이 놀이는 신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 무당이 온 산을 해집고 돌아다니면서 희생으로 바친 개를 찾아내야 하므로 여간 까다롭지가 않으며, 노련하고 능숙한 무당이 아니면 웬만한 사람이 와서는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호랑이가 없

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호영산 호대감 놀이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호영산이라는 원한귀와 호대감이라는 신령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빼놓을 경우 동네가 뒤집힌다고 믿어 반드시 이 놀이를 한다고 한다.

물론 오늘날은 옛날처럼 격식을 갖춰 그대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호랑이를 죽이고 또 호신령(虎神靈)에게 희생을 바쳐 대접하는 모의행위(模擬行爲)를 통해 호환을 막고 동네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신앙심에는 변함이 없다. 과거 그토록 무속에 대한 탄압이 심했던 일제 강점기에도 문산 도당굿이 계속되었고, 1960년 전후로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복원하여 전승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문산이라는 고정이 풍파가 잦았던 곳임을 시사해준다.

한편 본고에 전재(全載)한 호영산 호대감 놀이는 범굿(호탈굿) 자료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알려진 범굿은 주로 동해안 지역에 한정되었는데, 이번에 서해안 지역의 범굿이라 할 수 있는 호영산 호대감 놀이를 처음 소개함으로써 해안과 밀접한 지역이라는 유사한 지리적 배경, 호환의 방지라는 같은 목적, 그리고 무언극으로 연희되는 굿놀이라는 공통점 등을 바탕으로 동서 양 지역, 나아가서 우리 나라 전역의 범굿을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놀이는 중부지방에 드물게 남아 있는 범굿 형태로서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예술의 차원에서도 보존가치가 있다고 본다.

## 4. 짚·풀 공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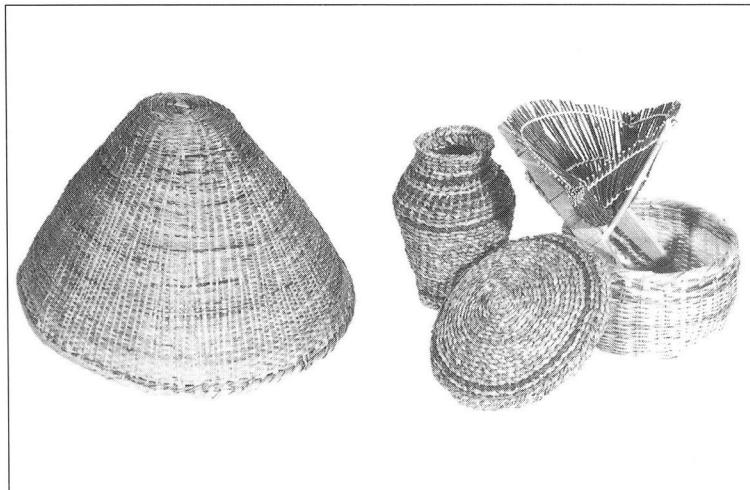
### ● 소재지 : 파주시 전역

짚·풀 공예는 전통 짚풀을 이용한 공예로 파주는 전형적인 논 농사지역이며 강연안과 산간지역이 드넓게 분포하여 전통적으로 짚·풀 공예의 활용이 많았던 지역이다. 전통 생활용구로서의 짚·풀 공예품들은 근대까지 가정이나 농사도구로 많이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화학제품의 생산으로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1998년 파주문화원에서 실시한 파주시 짚·풀 공예품 공모전을 계기로 파주에서 전통 생활용구로 사용되던 짚·풀 공예품들이 대량 제작 전시되었는데 출품된 작품들이 모두 50여종에 700여점이나 되었다.

그 중에서도 파주의 입진강 연안에서 채집 가능한 대풀과 갈대 등을 이용한 씨오쟁이, 우장 등이 출품되어 눈길을 끌었는데 작성면 주월리 김정홍(66)옹이 대표적인 기능 보유자이다. 두번의 행사에서 대상과 특별상을 수상한 김정홍 옹은 인근

임진강변에 자라는 풀과 나무껍질을 이용한 초고공예제작 기능을 완벽하게 재현했으며 그 기능은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2000년도 경기 으뜸이 선정·짚·풀 공예제작기능)

파주는 전통적인 농경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이 지역에서 활용되었던 짚·풀 공예품 제작 기능에 대한 전승과 아울러 중요한 민속자료로서 보존할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적성면 주월리 김정홍씨 작품〉